

“배터리 중심도시 도약” 광양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속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생태계 조성 착수보고회 정인화 시장 “세계 배터리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

광양시가 배터리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속도를 낸다.

광양시는 13일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특구) 지정 및 생태계 조성’ 기획과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남도와 광양시가 공동 추진하며 착수보고회에는 정인화 시장,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배터리산업협회·한국생산기술연구원·㈜더블유피의 자문위원들과 전남대·조선대·동신대학교 교수진, 포스코 퓨처엠·포스코필라리티를솔루션·포스코HY클린메탈 등 관련 기업 임원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용역을 수행한 류세선(위아이)대표는 연구용역의 추진 배경, 국내·외 이

차전지 시장 동향, 광양지역 여건, 연구 수행 계획,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 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25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근거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차전지산업 생태계의 고도화 전략수립 방안과 더불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 육성 전략 등에 대한 과업이 포함됐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의해 이차전지산업의 핵심기업 투자계획, 전문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계획, 지역산업 연계 방안과 인근 지역 산업 상생 방안, 재정 지원사업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빠르게 준비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생태계 조성’의 기획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시는 이차전지 소재기업 투자 확대뿐 아니라 배터리 셀 기업·리사이클링 기업의 대규모 유치를 이끌어내며 글로벌 배터리 중심

도시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인화 시장은 “이차전지는 수소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시의 대표 전략 산업”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광양을 이차전지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을 반드시 받아 세계 배터리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

했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차전지산업은 반도체와 함께 핵심적인 미래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 중”이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므로 전남도와 광양시, 전남TP와 수행기관, 전문가 등이 협력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용역 발주기관인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TP) 원장은 “이차전지산업은 우리나라 12대 전략기술산업이자 모든 정부 부처에서 큰 관심을 가지는 분야”라며 “전남TP가 용역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이 큰 만큼 관련 기관의 상시적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잘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용역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이차전지 산업을 이끄는 핵심 전문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연구기관 유치·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방안과 함께 광양시만의 차별화된 전략,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양=양홍렬기자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잔여기간 확보 ‘총력’

‘2029년 9월’ 전망…폐기물 조례·반입 통제 규칙 개정 추진

여수시가 만흥위생매립장(사진) 잔여매립기간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가연성 폐기물 작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만흥위생매립장의 매립 용량을 확장했으며 매립장 잔여매립기간은 2029년 9월까지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는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해 폐기물 잔여매립기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잔여기간 확보를 위해 타 지역은 물론 관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6월 시의회 정례회 안건에 상정했다.

또 매립장 반입 폐기물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현재 입법예고 완료 후 의견 검토 중이다.

폐기물 반입 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10일부터 30일까지 폐기물 반입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체·운반자에 대해서도 30일에서 최대 3년까지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시는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 폐기물 불법 반입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매립장 직원 13명을 음면동별 전담제로 지정해 현장 확인 후 반입 가능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만흥위생매립장 이용업체 대표 50여명을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 정책 간담회’를 열어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 추진 및 불법 반입 집중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시는 사설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 비용 대비 현저히 차이가 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해서도 추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만흥위생매립장의 잔여매립기간을 확보해 여수시 내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립장을 이용하는 업체는 관련 정책 등에 적극 협조해 주고 시민들도 생활폐기물 감량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여수=김진선기자

고흥군, 디지털 소상공인 양성한다

30일까지 접수…기기 도입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고흥군은 13일 “디지털 소상공인 양성을 위해 ‘2023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기 도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고흥군 관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다.

지원내용은 테이블 오더, 디지털 메뉴보드, 웨이팅보드, 무인 판매기, 서빙로봇, 키오스크 등의 구입비 및 임대료에 대해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이 사업비 전액을 선 지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군에서 현금 확인 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구비서류를 갖춰 고흥군청 경제산업과(061-830-5360)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매출증 증빙서류 등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매장 내 디지털 기기 전환으로 많은 인력 채용이 힘든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이 해당사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최복환기자

장경원 순천시의회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분양 당시 감정가격 결정…임차인 부담 ↑

순천시의회는 13일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경원(사진)의원이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정부 임대주택 정책은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업자 이윤만 추구하는 상황”이라며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

정 시 분양 당시 감정 가격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차인은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 해 결국 분양 전환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사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데 반해, 주



택 건설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당했던 입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적절한 분양전환가 산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된 순천시의 집값이 향후 분양 시기가 되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평생의 소원인 내 집 마련을 기대한 사람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정부와 순천시의 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순천=정기기자

“칼로리 ↓ 건강 ↑”…장흥 표고음료 재출시

MZ세대 겨냥 하이볼·에이드 밀키트 한정수량 제작

장흥군은 “대표 특산물인 원목표고 버섯을 활용해 만든 ‘표고버섯 음료’(사진)가 재출시됐다”고 13일 밝혔다.

장흥표고음료는 1999년 최초로 개발돼 연간 60만켤 이상 꾸준히 판매된 지역 대표 음료다.

표고음료는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탄탄하게 자리매김했으나 지난 2021년 생산 공장의 화재로 판매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월 정남진장흥농협, 다인음료,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과 재생산 협의에 돌입했다.

또 장흥군과 전문가가 참여한 시음회 행사를 추진하는 등 기존의 상품보다 더 나은 음료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기존 제품을 보완한 결과, 이전보다 칼로리를 낮춘 새로운 버전의 표고음료가 출시됐으며 지난 12일부터 정남진장흥농협 하나로마트, 관내 마트, 특산물 판매장(토요시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군과 정남진장흥농협은 표고음료 출시를 기념해 직원 무료 시음 행사를 개최했으며 지역 식당·공급업체에 무상으로 시음용 표고음료를 제공하는 등 판촉활동도 진행할 예정



이다. MZ세대의 ‘하이볼’ 열풍에 힘입어 쉽고 재밌게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표고 하이볼, 표고 에이드 밀키트도 한정수량 제작한다.

다가오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7월29일-8월6일), 통합의학박람회(9월8일-9월14일)에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김성 군수는 “장흥을 대표하는 지역 특화상품 표고음료를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며 “앞으로 장흥의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밀키트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렬기자

곡성군, 곡성형일자리 창출 ‘첫걸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곡성군이 곡성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뒀다.

13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곡성군청 소통마루에서 곡성형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귀동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및 군 부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곡성군은 곡성형 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점검 ▲일자리 기본

계획 추진 실무위원회(TF) 구성 및 운영 ▲곡성군 일자리 정책 현황 및 중장기 계획 검토 ▲일자리 정책 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일자리 관련 주체들의 의견 수렴 ▲곡성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맞춤형 일자리 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이다.

곡성군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설문조사, 군민 의견 수렴,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향후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 오는 12월에는 민선 8기 곡성군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곡성=이호산기자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새단장’

장난감 교체…백일상·돌상 대여 추가 운영

화순군은 13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의 낡은 장난감을 교체하고 백일상·돌상 대여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등 새단장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매한 새 장난감은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했으며 기존 영아 중심의 장난감에서 유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을 다수 구매해 비치했다.

또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백일사

진이나 돌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돌상·백일상 세트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군에서 제공하는 백일상·돌상은 각 2세트로 조화, 화병, 백설기 모형 등이 기본 제공되고 돌상에는 돌잡이 용품이 추가 제공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장난감 교체와 백일상·돌상 대여 서비스가 아이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화순=이병철기자